TAEHEUNG F&G

수목·조경 비료에 관한 모든 것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프리미엄 1등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용 토양개량제

생생토 골드 20kg

- 토양개량효과 증진
- 천연부엽토(강원 홍천) 30% 함유로 가스피해 없는 안전한 유기물과 영양성분 공급
- 유용 토양 미생물로 병해예방
- 보습제함유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장해예방
- 뿌리활착과 원기회복으로 수목 고사율 감소

조경용 고형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르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Fertilizer & Global 태흥F&G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룡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조경수 2023.07+08+09 Vol.180 한국조경수협회

ISSN 1225-416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3. 07+08+09 Vol.180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한솔홈데코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본찬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PLAVIN'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4구(분리형) (4.5ℓ, 6.4ℓ)
. 크기 : Φ200 x H200/Φ246 x H21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0㎖ (Φ120*Φ80)
/ 420 x 280 x H 170
. 용도 : 소나무, 편백 2년생 등

◈ 화분140(블루베리재배용기)
. 크기 : 1400㎖(Φ830 x H450)
. 용도 : 블루베리 재배전용용기

◈ 화분받침대(6구,9구,20구)
. 크기 : 6구-450 x 300 x 80
9구-382 x 382 x 79
20구-470 x 377 x 80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 생산용

◈ 화분 4.5,7,12,19,25
. 크기 : 4.5 ℓ , 7.0 ℓ , 12.0 ℓ 25.0 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Φ335xH305 / Φ430xH350
Φ470xH345 / Φ520xH375 / Φ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가로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Φ200/4.580	화분4.5	Φ211xΦ200xH200	4.5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Φ120/1.350	화분6.4	Φ246xΦ230xH200	6.4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Φ109/0.863	화분7	Φ257xΦ200xH200	7.0 ℓ	색상5종
12구	450x340x170	Φ102/1.050	화분12	Φ300xΦ270xH250	12.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Φ75/0.510	화분25	Φ385xΦ358xH300	25.0 ℓ	검정색
24구(일체형)	420x280x140	Φ64/0.310	화분140	Φ830xΦ750xH450	140.0 ℓ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20형	Φ335xΦ250xH300	19.0 ℓ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35형	Φ427xΦ335xH350	35.0 ℓ	
88구	440x320x65	Φ36/0.043	조경포트 45형	Φ470xΦ400xH345	46.0 ℓ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조경포트 65형	Φ520xΦ450xH375	65.0 ℓ	
삽목상자160	520x370x160	삽목상자	조경포트 95형	Φ589xΦ507xH427	95.0 ℓ	
삽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등 판매되고 있읍니다

Ki (주)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 운전중량 : 2,660kg • 버켓용량(표준) : 0.11㎥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 가스는 없애고, 연료비 걱정은 줄이고, 구입 부담은 내렸습니다.

농축산, 조경, 화훼 현장

일반 토목 현장

지하 밀폐 현장

철거 현장

볼보 일렉트릭 전기소형굴착기 론칭 기념

고객 사전 상담 이벤트

"지금 바로, 부담없이 제품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기념선물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볼보의 전기 굴착기 전문 상담사와 직접 제품 정보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증정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볼보 콜센터 1644-1172 로 제품 상담 신청 또는
www.volvoce.co.kr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직접 참여 가능

상담이벤트 참여시 혜택
1. 볼보 전문 카운셀러 상담 연결
2. 제품 정보 및 고객 현장 컨설팅 지원
3. 가격 및 보조금 지원 안내

고객 방문 시승 지원 (제품 상담시 신청 가능)
볼보 ECR25 행사장 방문 시,
직접 시승 작업 체험 지원 (볼보경기센터 행사장 /경기도 화성시)

이벤트 기념품
1. 사전 상담 고객 : 볼보 쿨토시 증정
2. 시승 방문 고객 : 볼보 쿨토시 + 볼보 휴대용 미니 백팩 + 운전실 햇빛 가리개 증정
3. 제품 구매 고객 : 볼보 ECR25 오리지널 모형(1:32) + 볼보 고급 딜리버리 키트(3종)제공

이벤트 참여고객 증정품

볼보 쿨토시 / 볼보 미니 백팩 / 운전실 햇빛 가리개

제품 구매 고객 증정품

볼보 캐리어 백 / Volvo Chronograph Solar Watch 볼보 오리지널 트윈 와치 / 볼보 고급 선글라스 /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본 증정품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전국 영업망
서울지사 02-2678-5465 | 경기센터지사 031-294-8111 | 강원지사 033-762-7491 | 충청센터지사 041-556-9012 | 중부센터지사 042-932-7113 | 전남센터지사 062-945-4441~3,5
대구경북센터지사 053-741-2700 | 부산경남센터지사 055-256-4100 | 춘천지점 010-6305-1223 | 울산지점 052-710-4989 | 제주지점 064-712-2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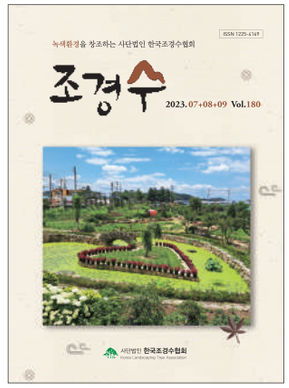
KakaoTalk 채널 ▸http://pf.kakao.com/_xhOaGC
V-TV 볼보건설기계 유튜브 방송 ▸Youtube 채널 **볼보 V-TV**
볼보건설기계 고객지원센터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앱 설치 후, 이용가능

VOLVO

Contents

2023. 07+08+09 Vol.180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04	협회소식		
19	지회소식		
32	회원사탐방	경남중부지회 「만년교정원」	• 박정기
42	조경수 특집	자귀나무	• 이노혁
50	조경수 유지관리	외래 돌발해충 3총사의 생태와 방제	• 정규종
60	새로운 조경수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5편	• 김종근
72	조경수 기고	다산과 백련사 동백 숲	• 이용직
76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칡넝쿨로 다리를 만든 유성룡	• 신현배
80	노거수 산책	의령 신포리 느티나무	• 박정기
86	회원사 동정		
87	회비납부 안내		

만년교정원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원다리로 23 (동리 242–6)

발행인 겸 편집인 윤수근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3년 9월 8일
(통권 제180호 07+08+09호)
발행 및 편집주간 류주열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Ⅲ)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본지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발행자인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복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NEWS

조경수 해외수출 상담회 출장 결과보고

1. 연수명 : 조경수 해외 수출상담회

2. 연수국가 : 대만(Taiwan)

3. 연수지역 : 타이중(창화) - 타오위안

4. 연수기간 : 2023.06.27. - 30.(3박 4일)

5. 연수 참가자 : 31명

- ㅇ 한국조경수협회 임원 29명,
- ㅇ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1명
- ㅇ 현지안내 경농화훼종묘(주) 1명

6. 연수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ㅇ 조경수 수입업체의 수입동향, 수입산 유통경로 등을 파악
- ㅇ 수입업체 바이어 상담으로 수입 요구사항 파악 및 국내 보유 수종 소개
- ㅇ 국내 조경수 재배업체 및 생산자에게 해외시장 개척 능력제고 기회를 제공

▣ **추진 내용**

- ㅇ 한국의 재배업체가 보유한 수출 가능한 조경수 소개
  - 사진첩 및 동영상(USB)
- ㅇ 조경수 유통 시장을 통한 유통현황 파악 및 현지 희망 수목 파악
- ㅇ 수입, 유통업체 방문 및 수출 상담하고 10월초순경 수입업체 바이어를 초청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및 수출입 약정서를 교환한다.

글.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윤수근

▣ **수출상담 내용**

ㅇ 제1일(06/27)

부산공항 08:30 KE-2249편(9명)과 10:00 인천공항 OZ-711편(22명)으로 11:30 대만 도원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로 花田盛事 榮夢莊園을 방문하여 오찬을 겸한 조경수 수·출입 의견을 교환하고 예식장을 겸한 명품 정원을 견학 하였다.

정원 방문 환영 인사 장면

꽃과 나무로 조화롭게 조성한 정원

NEWS

조경수 해외수출 상담회 출장 결과보고

○ 제2일(06/28 오전) 彰化縣 成美文化園

약 10ha 면적의 성미문화원은 창화현 융징시에 위치하며 역사, 문화, 레크리에이션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정원으로 공원 부지에는 100년 된 주거지인 청메이 홀과 정교한 정원 허더 홀이 있고 청메이 홀은 위 가문의 전통과 생활용품 및 농경유물이 잘 보존되고있어 명문가의 가풍을 엿볼 수 있었다.

成美文化園

종자를 상징하는 온실에서의 숲 해설 장면

조경수 해외시장 조사단원 기념 촬영

06/28 오후에는 창화시 전미촌 3대 가족경영으로 유명한 永信園林은 1천평 농장에 나한송과 해송 분재, 진백, 오색 배롱나무가 조경미를 연출하고, 대표인 류선생은 한국산 화훼류, 은행나무를 수입하고 있으며, 경농화훼 배형환 대표와는 2대째 수십 년간 무역하고 있어 친절한 안내와 가족 환대는 인상적이었고 주변에 진백 분재원 2곳의 견학으로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다.

永信園林 정문

NEWS

조경수 해외수출 상담회 출장 결과보고

○ 제3일(06/29)

6/29 오전에는 창화현 계주향의 萬景園藝(대표 진창현)를 방문하였다.
창립 25년으로 원내에 예술 건축물을 세우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 화초, 나무, 돌 등을 수입하여 현재 타이완에서 제일 크고 우수한 원예업체로 볼거리가 충분하였다.

萬景園藝 정문

분재형 배롱나무/컨테이너 재배

조경수와 조각물로 구성한 정원

자연경관과 계곡 폭포 정원

NEWS

조경수 해외수출 상담회 출장 결과보고

6/29 오후에는 2,200평 대형 온실에 다양한 종류의 화초와 먹거리를 병행한 銘園美術館을 방문하여 오찬을 겸한 조경수 수·출입 정보를 교환하였다.

명원미술관은 전문 정원 설계계획, 분당재배, 조경수 매매, 특히 일본 수입 장미, 진백, 나한송 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다양한 소품의 전시 판매장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박 4일의 조경수 대만 수출상담회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산림청과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과 경농화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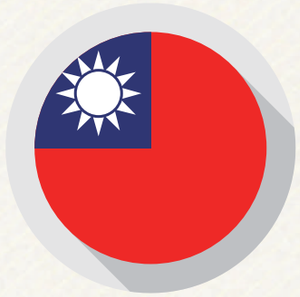
○ 농장주 중심의 대만 바이어 상담으로 수출시장 여건이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상호 수·출입 협약으로 노력하면 수출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 대만을 통한 거대 시장 중국의 수출 확대로 해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만의 조경수 수입 수요에 공급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 조선향나무(진백), 은행나무, 오색 배롱나무, 장송, 조형소나무 등 희소 가치가 높은 대형 특수목의 수요가 많기에 한국조경수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공급 가능한 조경수목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 10월 하순경 대만 바이어를 초청하여 전국 4개 권역(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을 순회하며 수목을 답사하는 한편, 수·출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쌍방 수출·입 조건이 협의 되는대로 조경수 수출을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만, 중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고품격 정원 조성이 대세이므로 수종에 관계없이 대형 특수목 시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고품격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에 전력해야 할 것임.



NEWS 2023년 상반기 감사

01. 일 시 2023년 7월 5일 (수) 10:00

02. 장 소 한국조경수협회 사무실

03. 감 사 노종식, 이근형

04. 내 용 업무서류 및 회계장부 일체

NEWS 제8회 조경수 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 발전 포럼 개최지회(경기)와의 간담회

01.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11:00~16:30

02. 장 소 수원컨벤션센터(발전 포럼 행사장),
YBM연수원(숙소 및 교육장), 일월수목원(견학장소)

03. 참석자 윤수근 회장, 봉기종 추진위원장(협회 부회장),
류주열 상근부회장, 송병수 경기지회장, 이학종 경기지회
사무국장, 경기지회 회원, 협회 사무국 직원 등.

일월수목원

YBM연수원

NEWS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01. 일 시 2023년 8월 23일 (수)

02. 장 소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주회의실)

03. 참석자 산림청 : 산림청장, 차장, 각 국장 및 관계관
임업단체 :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 10명

04. 내 용 각 부서별 현안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주요현안 관련 협단체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NEWS 2023년 지회 임원 연찬회

01.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 ~ 8월 31일 (목)

02. 장 소 신진도 산림수련관

03. 내 용

-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중앙회)
- 지회 운영 사례발표
  - 경기지회장 송병수
  - 경기지회 사무국장 이학종 (제8회 발전포럼 행사계획)
  - 충북지회장 박정순 (조경사업과 연계한 6차 산업)
  - 전북동부지회장 송인자
  - 광주·전남서부지회장 이병관
  - 경남중부지회장 정준호
  - 부산지회장 박미애
  -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 이재윤

NEWS

2023년 지회 임원 연찬회

윤수근 협회장님 인사말씀

송병수 경기지회장

이학종 경기지회 사무국장

김규열 명예회장님 강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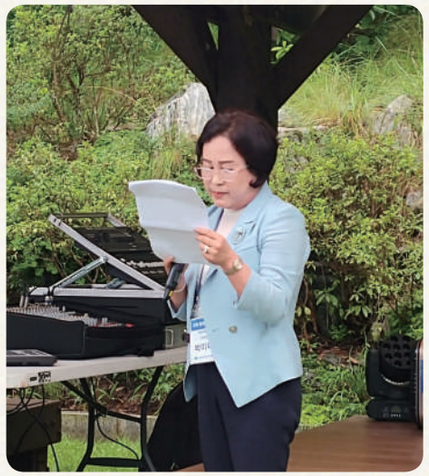
박정순 충북지회장

송인자 전북동부지회장

NEWS 2023년 지회 임원 연찬회

이병관 광주·전남서부지회장

정준호 경남중부지회장


박미애 부산지회장

이재윤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

NEWS 경기지회 제8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추진위원회 간담회

01.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02. 장 소 마벨리에 (안양시 평촌 소재)

03. 참석자 송병수 경기지회장, 봉기종 추진위원장, 홍명호 감사, 이학종 사무국장 등 경기지회 회원

04. 내 용 봉기종 추진위원장(협회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4월 5일)
홍명호 경기지회 감사 산림청장상 수상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4월 5일)
이학종 사무국장 발전포럼 준비사항 경과 보고

봉기종 추진위원장(협회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홍명호 경기지회 감사 산림청장상

NEWS 2023년 울산지회 하계 해외탐방

01.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 16일 (일)

02. 장 소 몽골 울란바토르/테를지

03. 참석자 지회 회원 15명

NEWS 2023년 광주전남서부지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01. 일 시 2023년 7월 25일 (화)

02. 참석자 광주전남서부지회 회원

03. 내 용 신규회원과의 만남, 소통, 지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광주광역시 제1호 민간정원 견학

NEWS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해외 연수기

글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사무국장 권기택

중국 연길 백두산 (북파) 4일 (23.6.11~6.14)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회원들이 23.6.11부터 6.14일까지 3박 4일간 해외선진지 견학 [중국 길림성 연변지대 장백산 북파]으로 정준호지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은 해외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경남중부지회에서는 2년에 1회씩 지회 지원금을 보조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코비드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연기되어 오다가 오랜만에 실시한 해외연수라 개개인마다 기대하는 여행이었을 것이며,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회장과 노종식감사의 물심양면의 도움 덕분에 더욱 보람된 연수가 되었다. 짧은 연수기간동안,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백두산을 본다는 것, 그것도 천지의 푸른 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한다. 연중 맑은 날이 3분의 일이 안된다고 하니, 천지를 보는 일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밖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대한독립군의 옛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둘러보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돌아왔다.

제 1일차 : 6월 11일 일요일

김해공항에서 시차가 한 시간인 연길에 10시 40분경에 도착했다. 연길 공항에 접근했을 때, 군사보호지역이라 비행기 창문을 모두 닫고 철저히 봉인까지 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백두산 여행인데, 연길 주변의 경치를 예전처럼 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첫 방문지인 연길(延吉, 옌지)시는 지린성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이며, 인구는 약 639,000명이다. 동쪽으로 도문시와, 남쪽으로는 용정시와 접해있다. 백두산 탐방객을 겨냥한 관광산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호텔, 백화점이 도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중식을 마친 후,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용정으로 출발했는데 해란강을 차창너머로 구경했다. 과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의 청산리 전투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선구자 (시 윤해영 / 곡 조두남)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이하 생략) (2절, 3절 생략)

드디어 도착한 용정(龍井). 용정은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이다. 면적은 2,591km², 인구는 26만여 명이고,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율이 70%에 이른다. 특이하게, 용정은 만주족이나 한족이 아닌, 조선족이 개척한 도시이다. 용정시에 있는 용두레우물은 용정시의 이름이 붙게 된 기원이 되는 곳으로, 이 샘으로 인해서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한다.

용두레 우물 앞 단체사진

원래 만주족들에 의해 사용되던 우물인데, 1879년부터 188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넘어 온 청년 장인석, 박인언이 우물가에다 '용두레'를 세웠다. 이후 1934년 용정촌에 살던 주민 이기섭이 우물에 약 2m 높이의 비석 1기를 세워 '용정지명기원지

NEWS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해외 연수기

일송정 정자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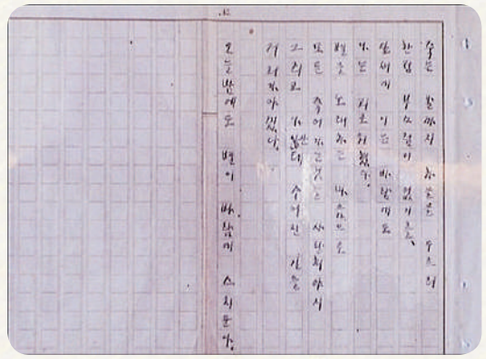
일송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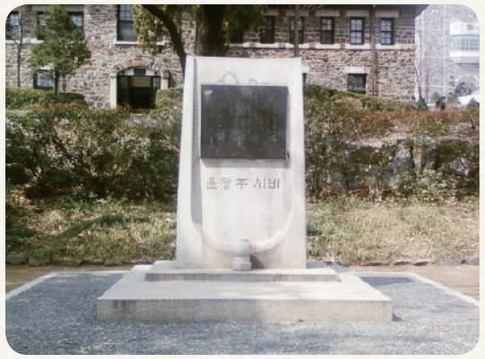
우물'이라고 새겼다. 이후 문화대혁명 때 파괴되었던 것을 지금 그 자리에 용정지명기원지정천(龍井地名起源之井泉)이라고 쓰인 비석과 함께 1986년 용정현 인민정부에서 복원한 우물이 남아 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용정에 있는 '일송정'은 대일항쟁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곳으로 독립투사들이 오가며 쉬던 곳이었다. '일송정'은 원래 정자 모양의 소나무였는데, 일제치하 1938년 고사한 후, 1991년 그 자리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한다.

독립투사들이 쉬어가던 그 시절 일송정은 아니지만, 부디 잘 자라서 큰 고목이 되어 훗날 찾아오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윤동주 시인 생가를 방문했다. 동간도의 명동 태생의 윤동주는 1941년 12월 27일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할 무렵, 19편을 골라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려했으나 일제의 탄압을 걱정하는 주위의 만류로, 그 원고를 정병욱에게 증정한 후 194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간다. 도쿄 릿쿄 대학(立教大学),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의 묘비. 일본인 학자에 의해 사후 40년 만에 발견됨


윤동주 시인의 <서시> 육필원고 (1942)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경내에 있는 윤동주 시비

윤동주 생가

윤동주 생가 앞에서 (2023)

교토시 도시샤 대학에 다니던 그는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1943년 7월 14일, 귀향길에 오르기 전 치안유지법에 따른 사상범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 구금되었고, 이듬해 교토 지방 재판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지린성 룽징시에 유해가 묻혔다(향년 28세). 조부 윤하현의 비석으로 마련한 흰 돌을 윤동주의 비석으로 사용하였다.

백두산을 오르려면 먼저 꼭 들려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의 시골 읍내처럼 작고 조용한 곳 바로 이도백하(二道白河)라는 곳에 도착하여 왕조호텔에 투숙했다.

NEWS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해외 연수기

제 2일차: 6월 12일 월요일

드디어 둘째 날, 북백두산 가는 날이었다. 조식 후 북파 산문으로 이동(40분 소요)하여 셔틀버스를 갈아타고 승합차 주차장에서 북파 등정 전용 차량인 승합차를 다시 갈아탔다. 천지를 볼 수 있을지는 정상의 기상에 달려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마침내 백두산 천지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신비감이 감도는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다. 민족의 영산이라 하지만 북쪽, 서쪽, 남쪽은 중국을 경유해서 등정할 수 있고 동쪽은 북한을 경유해서 등정할 수 있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한글이 적힌 플래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아무런 표시 없이 단체 사진을 촬영해야 되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 다음 말들이 많이 인용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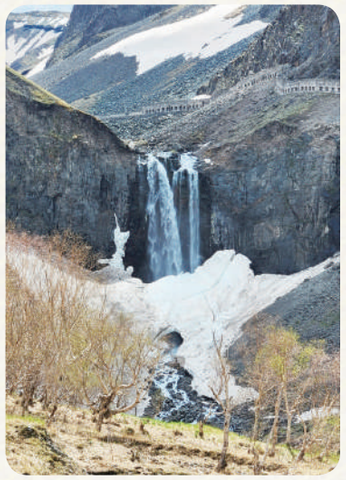
백두산 (북파코스) 천지를 구경하는 많은 관광객

백두산 2620미터 고도

한글 플래카드 없는 백두산 등정기념 단체사진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의 장관

- 365일 중 평균 267일이 안개라는 백두산 천지
- 3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 볼 수 있다.
-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못 본 사람이 천지라 천지라는 말도 있다.


신비한 장백(비룡)폭포

정준호지회장 부부(R)와 함께

"삼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처럼, 덕을 많이 쌓은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조경수협회 회원들은 복을 받아 천지를 영접할 수 있었다.

천지를 영접한 후, 주변 관광을 하고 장백폭포로 향했다. 백두산

NEWS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해외 연수기

천지가 머금은 물이 '달문'을 통해 빠져나와 송화강의 시작이 된다. 달문을 지난 물줄기는 용암이 빚어낸 협곡으로 쏟아지는데, 장백폭포다. 장백폭포 물은 68m의 수직 절벽을 따라 천지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한여름에도 폭포 아래에는 지난겨울의 눈이 남아있다. 계곡의 양편은 수직에 가까운 주상절리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68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주변 온천 지대와 만나 신선계를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주변 온천지대를 관광하고 다시 약 두 시간 길을 달려 연길 카이로스호텔 (준 5성) 도착 후 투숙.

제 3일 차 : 6월 13일 화요일

연길 도로변에서 색다른 조경수목을 만나다.

조식 전 주변 조경수 탐색 중에 도로변에서 특이한 조경수를 보게 되어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름은 황금느릅나무였다. 영국 등 유럽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으로 삽목은 잘 안되며 주로 접목을 통하여 대량생산을 한다고 한다. 낙엽수이지만 봄, 여름, 가을 3계절 동안 황금색 잎을 가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추위에도 잘 견디며, 조형목 또는 군식해도 좋은 나무라 앞으로 유망한 조경수목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한다.

[사진 및 정보제공: 사)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신학식]

연길 카이로스 호텔 조식을 마치고 방천(훈춘)으로 2시간30분간 이동하였다.

방천 풍경구 관광객 봉사센터

훈춘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동부에 위치한 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국경 개방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시의 인구는 25만여 명이고, 이 중 한민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방천은 삼국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지역의 관문으로 용정에서 약 250㎞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길림성 8경중의 하나에 속하는 곳이다.

삼국국경전망대 용호각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국 국경이 교차되어 있는 지점을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각 국의 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를 있는 철교도 보인다. 중국은 동해 쪽 바다로 진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이 보였다.

용호각 앞 단체사진

용호각을 조망하고 이어서 도문으로 1시간 40분간 이동. 도문은 용정에서 방천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며, 북한이 지척에 보이는 두만강변 도시다. 강변을 따라 철책이 설치되어 있으며, 잘 보이지 않는 초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

NEWS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해외 연수기

으므로 북한 쪽으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가이드의 당부가 있었다. 멀리 북한쪽 마을과 건물들이 보였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잘 보이지 않았다.

도문에서 연길까지 한 시간을 달려 다시 연길 카이로스 호텔로 이동, 투숙하며 셋째 날을 마감했다.

제4일 여행 마지막 날

6월 14일 수요일

조식 후 새벽시장을 방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연길, 백두산 북파 등정 등 3박 4일의 연수를 마감하고 귀국하기 위해 연길공항에 9시 40분경 도착했다.

연길 공항에서 회원들의 단체사진

탑승수속 후 부산으로 향해 에어부산 BX338 항공기가 이륙했고, 약 4시간의 비행 후 김해공항에 안착하였다. 김해공항 귀국 후 이번 연수에 함께한 회원들은 여행 출발 때의 설레임과 종료 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에서 참가한 회원들이 짧지만 알찬 일정으로 먼 여정을 안전하게 오가며 중국 연길 백두산(북파)등정 해외 연수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3년 가꾼 조경수 재배포지, 민간정원으로 빛을 발하다.

경남중부지회 「만년교정원」

글 · 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 정 기**

만년교정원은 경남중부지회 회원사이다. 만년교(萬年橋)는 1972년 보물로 지정된 홍교(虹橋)이다. 이 무지개돌다리 남쪽 250미터에 2021년 경상남도 민간정원 제11호로 지정된 만년교정원이 있다. 조경수 재배포지가 민간정원으로 탈바꿈은 시대를 읽고 조경수 업역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만년교정원은 1.6ha에 1999년부터 심고 가꾼 소나무류, 향나무류, 서양측백류, 주목, 이팝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매실나무, 무궁화, 수국, 영산홍 등 조경수 7천여 그루가 저마다 맵시를 뽐내고 있다. 종(種)과 수형이 다양한 데다 형형색색 초화류와 어우러지고 재미를 더하는 정원길에 연못, 우물과 동굴, 조형물, 포토존과 전망대, 그리고 재배온실까지 있어서 조경수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전정귀 대표는 임학을 전공한 임업후계자이자 농업경영인이다. 일찍이 나무농사에 일가견을 가져 1979년에 성공사례 발표 전국최우수상을 받았다. 분재기술을 보유한데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연구 근성은 이미 알려져 그의 손을 그친 나무는 예술이 된다. 2019년 우리 협회에 가입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한국민간정원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스토리(story) 만년교정원에는 지역의 이야기가 있다. 정원의 이름이 된 만년교를 비롯하여 우포늪, 부곡온천, 연지못, 그리고 한국전쟁 아픔까지 녹여 내었다. 구석구석 향토색 짙은 주제가 오롯이 스며있어 생각하는 정원이 되고 눈에, 마음에, 카메라에 담는 정원이다.

코스모스(cosmos) 만년교정원에는 우주가 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 차고 넘친다. 지역을 넘어 지구적 · 우주적 관점을 갖게 한다. 지하로부터 공중까지 오묘한 선형과 공간 속에 중력을 거스르는 돌이 있고 거꾸로 자라는 나무도 있다. 역발상을 배우는 정원이다.

한국미학(韓國美學) 만년교정원은 한국의 정서가 살아 있다. 일본식 조경의 들여쌓기(すはま:洲浜) 석축과 서양식 정원의 기하학식 디자인을 배제하면서 한국의 미학을 잘 구현했고, 우포늪을 가진 창녕의 정원답게 수경관을 많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오랜 세월 손수 만들어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상업적인 정원과는 격이 다르다. 깊은 우물부터 연못, 지상 동굴, 둑방길을 연상케 하는 원로(園路)까지 높낮이를 둠으로써 '평면성의 극복'이라는 설계언어에 충실한 정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애향심이 철철 넘치는 가장 지역적인 정원이니 가장 세계적일 수밖에 없다.

"정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변화무쌍한 자연과 식물의 생장력에 정원가의 역동성이 더해져 정원은 멈춰있지 않는다. 전정귀 대표는 쉼 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남다른 감수성에 정원은 늘 새로운 옷을 입는다. '큰들조경식물원'에서 '우포빛나라수목원'으로, 다시 '만년교정원'으로 이름조차 일신우일신이다.

"정원은 규모가 아니라 주제의 선명성이다." 시대에 따라 미학관은 바뀌게 마련이다. 오늘날 규모의 경제로 매스경관에 쏠림은 부인 못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원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거나 정원의 품격은 투자액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만년교정원은 매스경관에 이를 만큼 넓지 않고, 돈도 적지 않게 들었지만 오랜 조성시간에 비하면 오히려 적다. 그러나 구석구석 선명한 주제와 도드라진 디자인을 만날 수 있어서 '뜻밖의 발견' '뜻밖의 감동'이 있는 세런디피티 가든(serendipity garden),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정원이다. 특히 우주에서 본 정원, 우물 안 개구리 정원, 우포늪 축소 정원, 하트연못 정원, 석빙고 정원 등 지역색을 담은 주제원은 감동이 배가된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정원은 전국 103곳에 있다. '생각하는 창작정원'을 표방하는 만년교정원은 경남 11번째, 창녕 1호로 2021년 6월 5일에 지정되었다. 전정귀 대표에게 정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1988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서 진백, 백일홍, 애기사과를 심으며 조경수 재배를 시작했다. 1999년부터는 지금의 정원을 조성해 왔다. 당시 280평 면적이 5천여 평이 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 한 평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지난 세월 힘들었던 과정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다. 넓은 정원을 혼자 가꾸기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민간정원'이라는 인정을 받으니 큰 위안이 된다. 돌이켜 보면 어릴 적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 이미 나무와 인연을 맺어 분재를 키우고 접목기술을 배웠다. 조경수 재배를 하면서는 나무를 보여 주고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품으로서 감상 값을 지불 할 수 있는 나무를 키우겠다는 포부였다.

당초 수목원을 목표로 했다가 수형미와 경관 완성도가 요구되는 정원으로 수정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을 구획하고 동선을 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보는 이의 눈높이였다. 성토와 절토로 높낮이를 두고 넓거나 좁거나, 길거나 짧거나 공간에 따라 주제를 도입하였다. 속담을 형상화 시켜 만든 '우물 안 개구리 정원'은 겸손을, 낙동강전선 격전지 참호와 벙커를 표현한 '둑방길 정원'은 전쟁의 상흔을, 거꾸로 자라는 역상(逆狀) 곰솔이 있는 '우주에서 본 정원'은 역발상을, 우포늪을 1만 5천분의 1로 축소한 '우포늪 정원'은 지역정체성을, 이렇게 주제를 채워나갔다. 조성과정에 한시도 '볼거리'를 잊은 적 없고 늘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함을 창조하는데 진력했다. 그래서 위성사진에 가장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하트연못 정원이 만들어졌고 랜드마크가 되었다. 조성과정에 나오는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조형물로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입혔다. 짚신을 빼닮은 돌 하나를 주워놓고 "짝을 찾습니다." 글귀를 써 두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좋아하였다. 정원은 식물이 주연이지만 돌과 물은 빛나는 조연이다. 사람들은 물과 돌을 다루는 기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원리만 알면 의외로 간단하고 쉽다."

거꾸로 자라는 곰솔을 설명하는 전정귀 대표

하트모양의 모과나무 가지

모과나무와 회화나무 노거수의 사랑, 연리목 / 배(船)를 형상화한 지반에 심긴 배나무 /
촛불이 연상되는 배롱나무 연리지, 맹아지를 엮어 만들었다.

고전미가 돋보이는 돌다리 / 주제별 정원을 구획하면서 입구감을 강조하는 조형물 /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를 모티브로 만든 석빙고정원 들머리

만년교정원 랜드마크 하트연못 정원　　정원 내 온실의 재배식물

"우포늪을 닮은 정원을 만들었더니 그만한 면적에 풀장을 만들었으면 손님들이 바글바글 할텐데...하는 사람이 있었다.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듯이 정원은 풀장이 되지 않는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될 수 있어도."

만년교정원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원다리로 23(동리 242-6)
전화 : 055)536-0012
휴대전화 : 010-9431-2277(전정귀)

여섯 번째 이야기

자귀나무

이노혁
조경 특급기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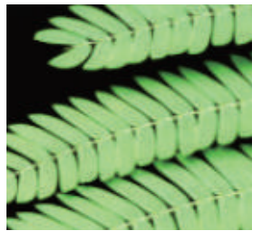
자귀나무

자귀나무(학명:Albizia julibrissin Durazz.)는 콩과식물 자귀나무속 인데 우리나라에는 자귀나무와 왕자귀나무{학명:Albizia kalkora(Roxb) Prain, 이명:A. coreana Nakai} 2종류가 자생한다. 자귀나무는 황해도 강원도 이남의 해발 700m 이하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분포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란, 동남아시아로 알고 있다. 자귀나무는 낙엽수 활엽수이고 높이 7m내외 까지 자라는 소교목이다. 이 나무는 어릴 때는 빨리 자랄 수 있어 혹한이 올 때는 가지 끝이 고사하기도 한다. 소엽의 크기(길이 1cm 내외, 넓이 3mm내외)는 작지만 잎줄기 전체는 어긋나고 우수 2회 우상복엽(羽狀複葉)으로 보통 1회 차 줄기 길이는 12cm 내외, 2회 차 줄기는 10cm 내외 이다. 잎 전체가 2회 우상복엽으로 되어 있어 크고 아름다워 열대수종처럼 보이기도 한다.

꽃은 보통 6~7월에 피는데 기후조건과 나무의 영양 상태에 따라 8월 중순까지피는 것도 있으며 꽃 색은 분홍 연분홍 연자색 흰색에 가까운 연분홍등 다양하다. 열매는 콩꼬투리 모양인데 아까시나무 열매와 아주유사하며 9~10월에 성숙한다.

왕자귀나무는 잎이 자귀나무보다 2배이상 크지만 꽃 색깔이 흰색에 가까운 아주 연한황색 연한연두색 연한자색으로 피어 꽃이 아름답지 않아 잘 식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 목포 유달산, 흑산도, 어청도에만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국내에도 호남지방 여러 시군과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및 인천시 옹진군 에서도 발견되었다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자귀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현재는 중국의 중남부 대만 북부 일본 남부지방에서도 발견되었다 하니 이제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라 할 수 없다. 자귀나무는 내한성, 내공해성, 내염성, 내건성이 강하고 직근성 이지만 이식력이 좋은 편이다.

꽃말은 두근거리는가슴, 환희 이다.


자귀나무 잎

왕자귀나무 잎

자귀나무 꽃

왕자귀나무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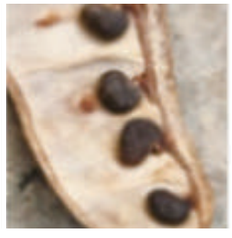
1. 자귀나무 이름의 유래

옛날 문자도 없었고 식물표준명이 없었을 때에는 식물 이름을 전체모양, 잎, 꽃, 수피의 생김새, 쓰임새, 냄새, 색깔 등을 기준으로 불렀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같은 마을에서도 표현방법과 발음이 부정확하여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표준식물명이 정해 졌다 해도 교육을 통해서 단기간에 바로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의 유래도 몇 가지 설이 있다.

잎 잠자는 모습

미숙협과

완숙협과


협과내 종실 (쌀크기의 2배)

가. 작은 목재를 다듬고 평편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공구 중에 자귀(짜구 짜귀 자구) 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루를 만드는데 사용한데서 유래 했다는 설이다.

나. 자귀나무 잎은 해가지면 서로 마주 펼쳐졌든 잎이 합쳐지는데 이 모습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여 잠자는 시간을 귀신같이 맞춘다고 해서 자귀나무가 되었다는 설이다. 낮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어두어도 잎이 합쳐지지 않으나 가지를 절단하면 낮이라도 잎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아 이 현상은 수분증발억제나 영양분 손실을 억제하려는 생리작용인 것 같다.

다. 잡귀를 쫓는다는 풍습에서 잡귀나무가 자귀나무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라. 짝나무에서 짜기나무로 변해서 자귀나무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 자귀나무에 대한 다른 이름

위에서 설명 하였듯이 식물명이 표준화되기 이전에는 많은 다른 이름이 있었다.

가. 합혼수(合昏樹), 합환수(合歡樹), 야합수(夜合樹), 야합목(夜合木): 자귀나무 잎의 합쳐진 모양이 부부의 금실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나. 애정목(愛情木): 정원에 심으면 부부간 사이가 좋아져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 유정수(有情樹): 잎이 합쳐진 것을 보고 정이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라. 청상(靑裳): 잎을 펼치고 있는 모양이 푸른 치마를 닮았다고 해서붙인 이름이다.

마. 망우(忘憂): 잎의 합친 모습이 근심을 잊게 해 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바. 여설수(女舌樹): 겨울에 협과가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쳐 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여자들이 수다 떠는 것처럼 시끄러운데서 온 말이다.

사. 소 쌀밥나무(소밥나무): 자귀나무 잎을 소가 잘 먹는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아. 실크트리(Silk-tree): 꽃의 수술이 비단실 같다하여 유럽에서 붙인 이름.

자. 비료목: 자귀나무는 콩과식물인데 콩과식물은 근류균 박테리아가 있어 공중 질소를 이용하여 뿌리부근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차. 자귀낭(자구낭, 잡귀낭): 귀신이 깃든 나무라 하여 집안에 심지 않는 금기목(禁忌木)으로 여겼다. 이는 집안에 심으면 화목해 진다란 설에 배치된다.

카. 익분화(鷁忿花): 중국에서 사용되든 용어로 화 안 나게 하는 꽃이란 뜻이다.
* 북한에서는 자귀나무, 야합수 라 한다.

3. 자귀나무에 대한 전설

전설(傳說)이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나 이야기임으로 표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먼 옛날 한마을에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중매를 여러 번 했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어느 날 이 총각이 고개를 넘다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집을 보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집안으로 들어가 꽃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집 부엌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는데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했고 총각이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 아가씨에게 주며 청혼을 요청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몇 년간은 잘 살다가 이웃마을 주막집 여인과 가까이 지내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 져서 그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밤이면 산신령님께 정성껏 빌었는데 어느 날 꿈에처음에 받았던 꽃을 꺾어놓고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결과 몇 달만에 돌아온 신랑이 그 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 꽃은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 아내에게 바쳤던 꽃임을 깨닫고 전과같이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살았고 아내는 그 꽃을 따와 베개 머리에 두게 되었는데 그 꽃 이름이 지금의 자귀나무 꽃이라 한다.

나. 중국의 우고 라는 사람이 조씨 성을 가진 여자와 부부가 되어 살았는데 그 부인은 단오 때가 되면 자귀나무 꽃을 따서 말린 후 꽃잎을 베개 속에 넣어 두었다가 남편이 우울 해 보이거나 불쾌해 하는 표정이 보이면 말린 꽃잎을 조금씩 꺼내어 술에 타서 마시게 한 결과 그 남편은 전과 같이 명랑해졌다는 전설이 있다.

다. 중국에서는 자귀나무를 집 앞마당이나 침실 문간 앞에 심으면 미움이 사라진다고 하며, 또한 친구의 노여움을 풀기위해서 이 나뭇잎을 따서 친구에게 보낸다고도 한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귀나무 잎이 틀 때 곡식을 심으면 늦서리 피해를 입지 않고 꽃이 필 때는 팥을 심는다고 하며, 피어난 자귀나무 꽃망울이 만발하면 그 해 팥 농사는 풍년일거라 점쳤고, 어김없이 그 즈음에 장마가 시작되었다. 꽃을 따서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두면 부부의 금실이 좋아진다고 여겼다 한다.

마.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는 자귀나무로 절구를 찧는 절구대(절구공이)를 만들어 부엌에 두고 사용하면 언제나 집안에 화기가 돈다고 믿어 왔다 한다.

4. 자귀나무의 용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나무에서 피는 꽃이 극소수인데 여름인 6월~7월 까지 60일 이상(기후조건과 영양 상태에 따라 8월 초순까지도 핀다.) 매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사랑을 받는 것 같다.이 꽃은 비단실로 만든 솔 같기도 하고 부채모양 같기도 하다. 이 나무는 수명이 짧아 천연기념물이나 노거수로 지정된 곳도 없고 당상목 (堂上木)으로 대우받고 있는 나무도 없는 것 같다. 자귀나무의 용도는 다양한데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경수: 1970년대 이전에는 조경수로 사용한곳이 거의 없다. 이 나무는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창경궁 춘당지 와 여주 세종대왕 능 부지에 비교적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2023년 5월에 확인한 결과 고사하였거나 노쇠하여 제거한 것 같다. 1970년대부터 조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자귀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없었고 1970년 중반부터는 고속도로에 자귀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무들은 산야에 자생하는 나무를 굴취 하여 이용 하였었다. 1980연대부터는 공원수 정원수 가로수 경관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나. 분재수: 자귀나무 분재는 꽃과 잎이 아름답기는 하나 수명이 짧고 생장속도가 빨라 수형을 고태감(古態感) 있게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 하겠다.

다. 약재: 한방에서는 자귀나무의 껍질을 합환피(合歡皮) 라 하며 그 꽃을 합환화(合歡花)라 하는데 불면증 건망증 우울증 폐렴 폐결핵 구충 이뇨 가슴두근거림 골절 통증 종기 등에 사용 했다고 하며 독성이 없어 오래복용해도 된다고 한다.

라. 사방조림수: 절개지및 사방공사용 으로는 비료목 효과로 식재를 하기도 한다.

5. 자귀나무 번식요령

우리나라에 자귀나무재배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재배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필자가 산림청에 있을 때인 1970년 여름철에 광주로 출장을 갔다가 무등산을 올라가 보게 되었는데 중간 하부에 자귀나무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재배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이 동행하였든 사람에게 가을에 종자채취를 부탁하여 소량을 확보하고 71년 봄

에 안양읍 7동에 본인 소유 나대지에 파종하여 200여주를 생산 판매 한 적이 있었다. 1970연대 중후반부터 고속도로에 자귀나무를 극소량 식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재배수목이 없어 산야에 있는 자연생을 굴취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자귀나무번식법에는 크게 나누어 유성번식(有性繁殖) 즉 실생번식 (종자번식)과 무성번식(無性繁殖) 즉 삽목법(줄기삽목, 뿌리삽목) 접목법 등이 있는데 분재의 소재 생산이나 정원의 한 두주 식재 시를 제외 하고는 실생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자귀나무 꽃의 색은 더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하면 여러 가지 꽃 색이 나오듯이 자귀나무 꽃도 분홍색이 진한 것 보통인 것 아주 약한 것이 있다. 본란에서는 실생번식인 종자 번식에 대해서만 언급키로 한다.

* 종자채취 및 정선: 9월 하순~10월에 완숙된 협과를 가위로 자르거나,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장대가위로 잘라 수집하고 협과를 음지에서 완전 건조 시킨 후 막대로 두들겨서 씨를 수득 할 수도 있다. 티 껍질을 풍선으로 1차 정선을 하고 2차로 수선(종자를 3~4mm 간격 철사 망 체에 담아 물에 담그면 벌레 먹은 종자 쭉정이종자 모래를 제거 할 수 있다.) 하여 음건 한다. 정선된 종자는 접촉 분말 살충제를 혼합하여 보관하든가 훈증살충제로 훈증처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종자저장 및 발아촉진: 건조시켜 보관했든 종자는 11월에 노지에 파종하여도 되고, 습사저장 즉 깨끗한 젖은 모래와 종자를 2:1로 혼합하여 종이봉투 같은데 담아서 쥐의 피해가 없고 통풍이 되는 음지창고에 보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천 매장(露天埋藏) 을 하는데 매장 시기는 11월 하순이나 12월초에 하면 되며 종자와 깨끗한 모래를 1:2 로 혼합 하는데 이때 물을 살수하면서 시행 하고 혼합물을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에 물기가 약간 묻을 정도로 한다. 혼합한 종자는 양파 자루에 담아 배수가 잘되는 양지쪽에 지면5~10cm이하에 파고 묻는데 (깊이는 40~50cm미만) 밑바닥 및 측면에 모래를 3cm정도 깔고 채워주고 상부에도 덮어주는 것이 좋다. 상부 모래위에는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사망을 덥고 흙을 지면 높이 만큼 덮어주고 그 위에는 짚이나 차광망을 덮어준다. 발아촉진 처리가 늦었을 경우에는 물을 끓여(80~90℃) 물통에 담고 물량과 종자량을 1:1비율로 하여 5시간 이상 침적 하였다가 파종 하여도 된다. 끓는 물솥에 넣어도 안 되고 끓인 물 양에 비해 종자가 너무 적으면 발아력을 잃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 파종시기: 종자파종은 11월(추파)이나 다음해 봄3월~4월 상순 이 좋다.

* 파종상 만들기: 파종상은 잣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파종상 만드는 것과 같으며 파종상 만들 때는 필히 토양살충제와 기비(부숙퇴비나 복합비료)를 뿌리고 잘 혼합해 주어야 한다. 포지 선정은 건조한곳 보다 배수가 잘되고 습윤한 곳이 좋으며 보통인 경우 상 높이는 5cm, 습한 곳은 7cm정도가 적당하다. 상 폭은 0.9~1.0m로 하고 상 길이는 20m 이내로 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좋다.

* 종자파종: 속성수 이므로 줄뿌림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1m길이에 골을 7개 (15cm간격)를 타고 깊이는3cm정도로 하며 1m^{2}당 종자 50개 정도를 골고루 놓고 1.5cm정도 흙을 덥고 손바닥이나 판자로 씨 골을 두들기고 다시 흙을 씨골 위에 0.5cm두께로 덮어준다. 다시 건조방지를 위해 파종상면을 짚(m^{2}당 500g정도) 또는 차광망을 덮어준다. 4주 정도면 종자가 발아되므로 이즈음에는 매일 살펴보고 지상발아가 5~10% 정도 확인되면 오후에 물을 충분히 주고 다음날 10시 이후에 발아한 묘가 상하지 않도록 피복물을 조심스럽게 걷어준다. *순량율:94% 발아율:56% 효율:53% 1L당: 17,300입

* 발아후의 관리 및 생산: 잡초제거시 유묘가 같이 뽑힐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고, 중기 일기예보를 듣고 가급적이면 제초작업 간격이 조금 빠르거나 늦더라도 비가 온 후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건조기에는 작업 전일 오후에 관수를 하고 다음날 잡초를 제거하면 풀뿌리가 잘 뽑힌다. 추비는 m^{2}당 복합비료를 6월초에 60g정도, 7월 중순에 120g 정도를 골고루 뿌리되 이슬이 없을 때 주어야 한다. 생육상태에 따라 10~20% 증감 할 수 있으며 비료뿌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부드러운 빗자루나 먼지 털이개로 잎 사이에 낀 비료를 털어 주어야 피해가 안 생긴다. 솎음작업은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 까지 잡초 제거 시 밀생 및 겹친 것 빈약한 것을 2회이상 솎음하여 묘목 크기에 따라 m^{2}당 80 본 정도를 남겼다가 70본 정도를 생산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

조경수 유지관리

외래 돌발해충 3총사의 생태와 방제

정규종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1. 외래 돌발해충 3총사

해외에서 유입되는 동물과 식물들은 토착하여 살아가는 향토종에 위협을 주게 된다. 1970년대에 유입된 황소개구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양서류 하면 청개구리, 참개구리, 금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맹꽁이처럼 그나마 귀엽고 덩치가 작은 것들이 거의 전부이다. 그런데 황소개구리의 등장으로 새들도 뱀들도 이처럼 덩치가 크고 잡식성인 개구리를 처음 보게 되어 당황했을 것이다. 침입자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향토종은 낯선 침입자에 당하기만 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은 역시 자연에 순응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

가물치와 메기, 왜가리와 기러기, 유혈목이, 너구리, 족제비 등 우리나라 토착 천적에 의해 이제는 개체수가 조절되고 있다. 황소개구리도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자연의 규칙을 거스리지 않고 규범을 지키며, 하나의 생태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개체수가 완화되고 다른 동물과 교류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동식물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다람쥐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가물치가 미국 하천을 초토화시키며 힘을 과시하고 있다. 외래종의 침입은 건전한 생태계의 균열이 있는 곳을 파고들어 생태계를 훼손하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거대한 자연의 순리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제 소개할 외래해충 3총사도 최근에 유입된 해충이다. 이들도 조금씩 생태적 지위를 찾아가고 있다. 역시 건강한 생태계에 침입하지 못하고 교란된 도시지역, 농업지역, 숲

가장자리에서 우선 나타나 파괴된 생태계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억지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들 3총사는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다. 알 기간이 길고 알로 월동하며, 흡즙을 함으로써 그을음병을 유발시키며, 세균병을 전염시키기도 한다. 또한 약충과 성충의 톡톡 튀는 습성은 농약을 살포했을 때 멀리 도주하게 만들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애벌레 시기인 약충은 4월~5월에 나타나 4회 탈피하여 성충이 된다. 성충은 7월 정도에 나타나는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식물의 여름나기를 더욱 힘들게 한다.

1.1.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에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7월 중순 무렵 성충이 되고 8월 중순부터 나뭇가지 속에 산란한다. 알은 주로 1년생 나뭇가지의 아랫부분을 찢고 두 줄로 알을 낳으며 흰색 밀납을 덮어 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알 상태로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8개월을 보내기 때문에 알 상태로 직접 제거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밀랍이 덮혀 있는 잔가지를 월동 전에 제거하거나 초봄에 가지를 제거하면 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약충 시기인 미국선녀벌레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밀랍의 형태와 색깔에 있다. 노란색 밀랍물질을 부채살 모양으로 형성하는 것이 갈색날개매미충이고 흰색 밀랍물질을 꼬리에 달고 있는 것이 미국선녀벌레의 약충이다.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갈색날개매미충 알

갈색날개매미충 약충(3령충)

갈색날개매미충 약충(4령충)

충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												
약충												
성충												

〈표 1〉 갈색날개매미충의 생활사

갈색날개매미충의 기주식물은 과수류를 포함해 가죽나무, 때죽나무, 산수유 등 목본식물 32종과 개망초, 갈퀴덩굴, 쇠무릎 등 초본식물 19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다. 성충이 출현하는 7월 중순 이후에서 8월 중순경까지 초본류에서 목본류 1년생 잔가지로 이동하여 산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란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를 할 수 있다. 끈끈이트랩을 설치할 때는 높이 1～1.5m가 적당하며 야산과 인접한 과수원 등은 이 시기에 외부로부터 성충들이 날라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관심을 갖고 예찰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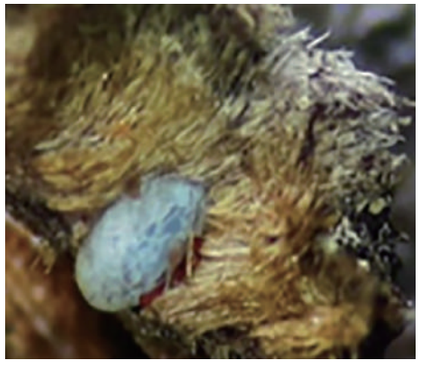
1.2.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김해에서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주로 단감, 사과, 배, 복숭아 등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유입되면 최악의 경우 엄청난 수로 개체를 불어나 농작물의 잎을 갉아 먹거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 먹는다. 분비된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불러와 과실의 상품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과 함께 3대 돌발해충 모두 성충이 산란하기 전인 6월~7월 중 성충 방제를 추진해야 방제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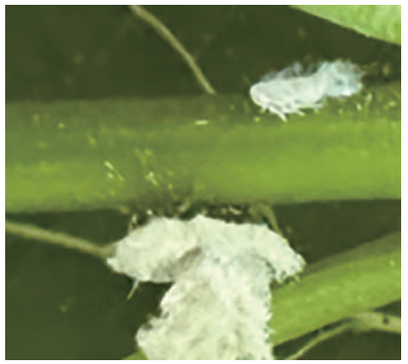
3대 외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의 특징으로 미국선녀벌레는 흡즙으로 작물의 수세를 약화시키고, 왁스 물질을 분비해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7월 중순부터 성충으로 우화하고 8월부터 산란을 시작하며, 암컷 1마리가 90여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선녀벌레 알은 식물의 수피나 가지사이에 알을 낳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갈색날개매미충이나 꽃매미의 알처럼 직접 제거하기 어렵다.

미국선녀벌레의 제거는 약충기인 5월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숲가장자리와 인근 야산에서 번식하여 지속적으로 농작물과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약살포는 농경지나 과수원 그리고 주변 야산과 숲가장자리에 동시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선녀벌레 성충



미국선녀벌레 알



미국선녀벌레 약충

미국선녀벌레 성충과 약충

충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	■	■	■	■						■	■	■
약충				■	■	■	■	■				
성충							■	■	■	■		

〈표 2〉 미국선녀벌레의 생활사

대표적인 약제로는 5월 중순부터 디노테퓨란 입상수화제 2,000배액을 2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살포하는 방식이 있으며, 장마 이후 급격히 늘어난 성충의 산란 전인 7월~8월에 살포하여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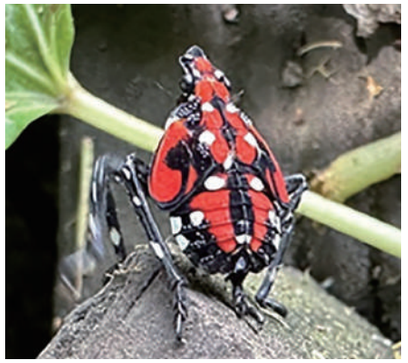
1.3.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꽃매미는 4월 하순경부터 부화를 시작해 6월 상순에 부화를 마치고 과수 생육기에 약충이 줄기를 흡즙해 수세를 약화시킨다. 다른 해충과는 달리 포도, 머루, 담쟁이덩굴 등 덩굴식물과 달달한 복숭아, 사과, 매실에도 피해가 심하다. 심할 경우 갈색날개매미충과 마찬가지로 줄기를 고사시킨다. 수확기에는 감로를 배설해 그을음병을 유도하고 과실 피해를 일으켜 상품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꽃매미는 7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나무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 먹고 살아가다가 9월 하순경부터 마리당 90~100개의 월동 알을 낳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월동한 알이 깨어나기 전에는 약제를 살포해도 방제효과가 없으므로, 꽃매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한 알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부터, 약충기간(1~3령)인 6월중순까지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8월부터 꽃매미 성충이 인근 야산으로부터 과수원으로 날라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수원 인근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가죽나무 등의 다른 기주식물에도 약제를 살포하거나,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주변의 다른 과수원과 동시에 방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식물의 줄기에 가지런히 낳는 것인데, 햇볕이 잘드는 남쪽방향에 줄기를 따라 세로로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다. 색깔은 잘 띄지 않지만 수피를 자세히 보면 알을 충분히 식별해 낼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꽃매미 알

꽃매미 1~3령충



꽃매미 4령충

꽃매미 성충

충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	■	■	■	■	■				■	■	■	■
약충				■	■	■	■	■				
성충							■	■	■	■		

〈표 3〉 꽃매미의 생활사

2. 외래 돌발해충의 비교

돌발해충 3총사는 비슷한 특성와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해외 유입, 4번 탈피, 알로 월동, 흡즙 해충, 튀는 습성, 그을음병 유발, 세균병 전염, 농작물 피해 등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3총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피해만 본다면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특징이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유입 시기도 비슷하고 피해양상도 비슷하여 구분하기 꽤 까다롭다. 특히 약충시기에는 밀랍을 가지에 매달고 생활하며 꼬리부위에 밀랍으로 치장하는 것이 비슷하여 헷갈리기도 한다.

그리나 갈색날개매미충의 약충은 공작처럼 꼬리를 펼치고 있고 성충이 되어가면서 노란색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선녀벌레는 밀랍을 덮고 있지만 꼬리의 치장이 갈색날개매미충보다 못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갈색날개매미충은 알을 1년생가지의 아랫부분에 가지를 찢고 알을 낳으며 밀랍으로 덮어두는 반면 미국선녀벌레는 알을 수피사이 그리고 가지틈에 낳아 산란흔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꽃매미는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생활사와 비슷하나 그 형태는 특징적이다. 알은 수피표면에 일렬로 나란히 90개 정도의 알을 낳고, 1~3령충까지는 검은색바탕에 흰색점이 있고, 4령충부터는 붉은 색을 띠게 된다. 그리고 성충의 경우 안쪽날개가 붉은 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들 3총사는 비슷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식물에 대한 피해는 동시에 발생한다.

〈표 4〉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의 비교

구분	갈색날개매미충 (2010)	미국선녀벌레 (2009)
학명	*Pochazia shantungensis*	*Metcalfa pruinosa*
기주	산수유, 감나무, 밤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주목 등	감나무, 참나무 등 활엽수와 농작물, 초본류,리기다소나무 등
피해	그을음병 의 유발 반점, 황화, 낙엽 유발	그을음병 유발
생태	1년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 연한 노란색 밀랍물질을 부채살모양으로 형성 1년생 가지를 찢고 2열로 20개 산란하고 톱밥과 하얀 밀랍으로 덮어 둠	1년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 하얀 솜같은 밀랍물질로 덮혀 있음 나뭇가지, 수피의 갈라진 틈에 90개의 알을 낳음
방제	끈끈이 트랩 설치 5~8월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디플루벤주론 수화제 살포 11월에 산란된 가지치기 실시	6~7월 아세타미프리드, 디노테퓨란수화제, 티아메톡삼입상수화제 살포

3. 외래 돌발해충의 방제

돌발해충 3총사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5월경인 약충시기에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 방제를 실패하여 7월~8월경 인근 야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해충들이 이동해 와서 피해를 주는 작물재배 기간 동안에는 농약안전사용을 준수하여 방제전용 약제를 1~2주간격으로 2-3회 살포하여 약충 및 성충을 동시에 방제해야 한다.

7월 중순 이후에는 꽃매미 성충이 인근 야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 포도 수확전까지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발생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며, 야산 주변 및 포도원 주변에 차단망을 설치하면 인근 야산으로부터 유입되는 꽃매미의 성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차단망은 꽃매미 성충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2~3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망은 조류 피해방지와 꽃매미 성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포도원 상부에도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꽃매미의 이동습성이 과수원 바닥에서 나무위로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으므로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 작물 재배기간 동안에 포도나무 등 나무의 밑둥 50~100cm 부근에 끈끈이트랩, 콘트랩 등을 설치하면 성충과 약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또한 꽃매미 방제에 등록된 약제는 페니트로티온, 티아메톡삼(스토네트) 등이 있으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계피라미드와 먹이사슬이 잘 형성된 자연은 외래해충을 막을 수 있으며 생태적 지위를 허락하지 않게 된다.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천적에 의해서 조절될 것이고, 쉽게 얼굴를 내밀어 협오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식물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스스로의 방어기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인간들도 오랜 세월 형성된 거대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연자원만을 활용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생존게임에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방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		직접 제거								직접 제거		
약충					농약 살포							
성충							끈끈이트랩, 농약살포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다섯 번째 이야기
Genus *Hydrangea*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수국 '마리에시'
Hydrangea macrophylla 'Mariesii'

Hydrangea macrophylla 'Mariesii'
수국 '마리에시'

수국 '마리에시'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키가 약 1.2-1.8m까지 둥글고 단정하게 자란다. 꽃은 6-8월경 연한 자줏빛 파란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불규칙한 얕은 톱니가 발달한다. 꽃차례는 편평하게 펼쳐진 우산 모양을 이루는데 가장자리에는 크고 화려한 무성화, 중심부에는 유성화들이 자잘하게 모여 핀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란다.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단정하게 정리하면 된다. 꽃을 잘라 화병에 꽂아두거나 거꾸로 매달아 건조 시킨 후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하면 실내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사진은 천리포수목원 故민병갈원장님이 사시던 후박나무집 진입로에서 찍은 모습이다.

수국 '마샤'
Hydrangea macrophylla 'Masja'

Hydrangea macrophylla 'Masja'
수국 '마샤'

다 자란 키가 약 60-90cm로 작고 단정하게 자란다. 꽃은 6-8월경 무렵 처음에는 연녹색을 띠다가 점점 자줏빛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얕은 톱니가 비교적 고르게 발달하거나 간혹 밋밋하기도 하며 끝부분은 뾰족하다. 꽃차례는 지름이 약 15cm

에 달할 정도로 풍성하며 작은 무성화들이 모여 반원모양을 이룬다. 산성토양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파란색, 알칼리성토양에서는 진분홍색 또는 장밋빛 붉은색을 띠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 가을철이 되면 와인빛 빨간색의 매력적인 색으로 변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염분에 강해 바닷가 조경 또는 정원용으로 우수하며 낮은 생울타리 또는 화분에 식재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뭬버'

Hydrangea macrophylla 'Möwe'

Hydrangea macrophylla 'Möwe'
수국 '뭬버'

키가 약 1.2m까지 둥글고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일반적으로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을 띠지만 점차 진분홍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아주 얕은 톱니가 발달한다. 하지만 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꽃차례는 평평한 우산 모양으로 피는데 바깥쪽은 크고 화려한 무성화, 안쪽은 자잘한 유성화들이 모여 핀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수변 가장자리나 칼라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식재하면 화려한 경관을 선보일 수 있다..

수국 '문스타'

Hydrangea macrophylla 'Münster'

Hydrangea macrophylla 'Münster'
수국 '문스타'

키는 약 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며 꽃은 6-10월경까지 연분홍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특히 늦가을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분홍색의 꽃받침 조각은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식재시 그늘진 곳에서는 꽃의 색깔이 다소 연해지며 양지에 노출되면 색상이 상대적으로 진해지는 점을 알고 계획하는 것이 좋다.

수국 '니그라'

Hydrangea macrophylla 'Nigra'

Hydrangea macrophylla 'Nigra'
수국 '니그라'

키가 약 1.2-1.8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빨간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이 품종은 품종명인 'Nigra'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줄기가 검정색을 띤다. 따라서 꽃도 예쁘지만 꽃의 색감과 함께 까만 줄기의 대조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꽃은 역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띤다. 다소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한편 빨갛게 피는 풍성한 꽃차례가 매력적이며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노출된 곳에 심어 강렬한 색상을 감상해도 좋다.

수국 '니그라'

수국 '니코 블루'

Hydrangea macrophylla 'Nikko Blue'

키가 약 1.5m까지 둥글고 빽빽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스텔톤의 파란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

Hydrangea macrophylla 'Nikko Blue'
수국 '니코 블루'

수국 '니코 블루'

Hydrangea macrophylla 'Otaksa'
수국 '오탁사'

밋하며 끝부분은 뾰족하다.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서는 분홍색으로 꽃이 핀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파란색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오탁사'
Hydrangea macrophylla 'Otaksa'

키가 약 60-90c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붉은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다. 강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강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식재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피아'
Hydrangea macrophylla 'Pia'

키가 약 60-90cm까지 천천히 낮게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6-8월경 약 10cm 지름의 크기로 둥글게 모여 피는 꽃받침 조각은 장밋빛 분홍색을 띠며 가장자리에는 얕은 톱니가 불규칙하게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붉은색을 띠지만 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낮은 생울타리나 볕이 잘드는 창문가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약간 그늘지면서 습도가 높은 숲정원에 심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Hydrangea macrophylla 'Pia'
수국 '피아'

Hydrangea macrophylla 'Pirate's Gold'
수국 '파이리츠 골드'

수국 '파이리츠 골드'
Hydrangea macrophylla 'Pirate's Gold'

키가 약 1.5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잎의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발달하는 점이 매력적이다. 따라서 꽃이 없는 시기에도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꽃은 6-8월경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불규칙한 얕은 톱니가 발달한다. 꽃차례는 편평한 모양을 이루는데 가장자리에는 무성화, 중심부에는 유성화들이 자잘하게 모여 핀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붉은색을 띠지만 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약간 그늘지면서 습도가 높은 숲정원에 심으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퀸 엘리자베스'
Hydrangea macrophylla 'Queen Elizabeth'

키가 약 1.2-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 꽃은 7-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파

Hydrangea macrophylla 'Queen Elizabeth'
수국 '퀸 엘리자베스'

Hydrangea macrophylla 'Red Emperor'
수국 '레드 엠퍼러'

스텔톤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좋으며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다소 그늘진 숲 하부층에 군락으로 식재해도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레드 엠퍼러'

Hydrangea macrophylla 'Red Emperor'

키가 약 1-1.5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점 자주빛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끝부분은 뾰족하다. 강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서는 밝은 빨간색을 띤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라인란트'

Hydrangea macrophylla 'Rheinland'

키가 약 1-1.2m까지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7-9월경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점 진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끝부분은 뾰족하다. 꽃받침 조각은 4-5장으로 갈라진다. 강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으로 갈수록 진한 빨간색을 띤다. 단정하

Hydrangea macrophylla 'Rheinland'
수국 '라인란트'

Hydrangea macrophylla 'Seascape'
수국 '시스케이프'

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시스케이프'

Hydrangea macrophylla 'Seascape'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약 2m까지 크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7-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은 둥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분홍색으로 은은하게 피는 꽃송이가 매력적이라 숲정원 또는 야생 느낌의 자연주의 정원에 식재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세추카야에'

Hydrangea macrophylla 'Setsuka-yae'

Hydrangea macrophylla 'Setsuka-yae'
'세추카야에'

수국 '세추카야에'

약 1-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8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을 띠다가 점점 분홍색으로 빽빽하게 모여 꽃차례를 형성한다. 분홍색의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은 반겹꽃처럼 여러겹 발달하고 가장자리에는 심한 톱니가 발달한다. 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수형이 단정하고 꽃이 화려하여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색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스노우'

Hydrangea macrophylla 'Snow'

Hydrangea macrophylla 'Snow'
수국 '스노우'

키가 약 1.2m까지 둥글게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6-9월경 레이스캡형의 편평한 우산 모양으로 피는 꽃차례가 매력적이다. 꽃차례의 중심부에는 자줏빛을 띠는 자잘한 유성화가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색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발달한다. 드라이플라워가 잘되는 품종으로 하얀색 꽃을 말리면 오랫동안 크림빛 하얀색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레이스 모양의 하얀색 꽃차례가 매력적이라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스노우'

수국 '서브 티헤즈'

Hydrangea macrophylla 'Soeur Thérèse'

약 1.5m까지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이다. 꽃은 8-10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순백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늦가을이 되면 흰색의 꽃받침 조각은 점차 파란빛 분홍색으로 변한다. 특히 잎이 두껍고 염분에도 강하여 바닷가 정원에도 좋으며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다. 또한 하얀색의 풍성한 꽃을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Hydrangea macrophylla 'Soeur Thérèse'
수국 '서브 티헤즈'

수국 트위스트엔샤우트

Hydrangea macrophylla Twist-n-Shout ('Piihm-I')

엔들리스 서머 시리즈(Endless Summer Series)로 키가 약 1.2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6-9월경 레이스캡형의 편평한 우산 모양으로 피는 꽃차례가 매력적이다. 꽃차례의 중심부에는 자줏빛을 띠는 자잘한 유성화가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꽃잎처럼 보이는 진한 분홍색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진분홍색의 꽃과 가을철 붉게 물드는 단풍도 아름다워 공간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식재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Hydrangea macrophylla Twist-n-Shout ('Piihm-I')
수국 트위스트엔샤우트

수국 '베이트키'

Hydrangea macrophylla 'Veitchii'

Hydrangea macrophylla 'Veitchii'
수국 '베이트키'

수국 '베이트키'

약 1.5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꽃은 7-9월경 레이스 모양의 우산 모양 꽃차례로 핀다. 꽃차례의 중앙에는 연분홍색의 자잘한 꽃들이 모여 피고 가장자리에는 하얀색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이 방사상으로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꽃이 없는 계절에도 하얀색 잎이 매력적이라 어두운 공간에 식재하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해도 좋다.

수국 '포르스터 풀리호즈'

Hydrangea macrophylla 'Vörster Frühr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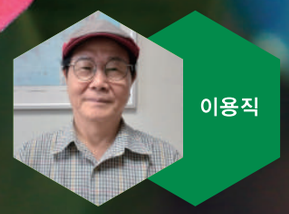
Hydrangea macrophylla 'Vörster Frührot'
수국 '포르스터 풀리호즈'

약 1-1.2m까지 단정하고 둥글게 자란다. 꽃은 7-9월경 처음에는 연녹색이지만 점점 빨간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며 끝부분은 다소 뾰족하다. 특히 꽃차례의 무성화들이 너무 빽빽하게 발달하여 서로 겹쳐질 정도이다. 강산성토양에서는 자줏빛 파란색을 띠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꽃의 색깔이 체리빛 빨간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풍성하게 발달하는 꽃송이가 매력적이어서 절화 또는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좋다.

참고문헌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http://www.nature.go.kr/kpni/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Glyn Church(1999) Hydrangeas. David Bateman.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Missouri Botanical Garden http://www.missouribotanicalgarden.org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다산과 백련사 동백 숲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山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억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짱 할아버지와 저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백련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만덕산에 자리한 사찰이다. 백련사는 신라 말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조선 후기에 여덟 분의 대사가 주석(駐錫)한 도량으로 더 알려져 있다. 백련사 동백 숲은 일만 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칠천여 주의 동백이 자라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동백나무 숲은 백련사 진입로에서부터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개체는 수피가 부패되고 공동이 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관에는 고사지와 쇠약지 등이 발생되고 많은 가지가 경쟁적으로 자라나서 자연 상태의 채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채광상의 문제는 동백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게 되어 일부 구역에서는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등 잎이 넓은 상록수와 수관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동백나무와 혼생되어 있는 대나무는 뿌리 생장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동백나무 숲이 개방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답압이 동백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동백군락 사이의 활엽수들이 상대적으로 키 낮은 동백나무의 수관을 피압 하고 있었고, 남아 있는 동백나무도 가지가 무성하여 수광 상태가 양호하도록 적절한 수관 조절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백나무 군락 내에 자생하고 있는 후박나무와 붉가시나무 등은 동백나무 숲의 순림 형태 유지를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백련사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의 숲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당시 백련사 주지 스님과 인연 등 문화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산 윤선도의 후손인 해남 윤 씨가 다산의 생모이다.

다산은 22살 때인 정조 7년에 진사가 된 뒤에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거쳤으나 신유사옥(순조 1년에 정약용 형제를 제거할 수단으로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씌워 숙청한 사건)으로 이미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황사영의 백서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내게 된다. 당시 조선조에서는 여러 곳에 유배지가 있었으나 다산이 유독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산 형제가 천주교도임을 들어서 다산의 외가인 강진과 해남 지방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산이 제어토록 하자는 의도가 다분했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강진 현감이 이안묵인데 이 사람은 한양에서 다산을 취조했던 관리였으므로 이 사람을 시켜서 다산을 감시하게 하자는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 있었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당하여 잠시 주막에 머물렀을 때 주모와의 주고받은 대화에서

"부모의 은혜는 같다 할 수 있지만, 어미의 노고가 더욱 많은데도 자식이 아비의 성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주모가 물었다. 다산이 답하여 가로되 "어미의 은혜가 크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에 주모는 "아비는 대를 이어주는 씨앗이고, 어미는 씨앗을 기르는 흙이지요. 씨앗을 온전하게 기르는 것은 땅의 기운이지만,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가 씨앗에서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옛 성인들이 교육하고 예의를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진이라는 시골 주막에서 술밥을 파는 노파와 나눈 이 문답은, 다산이 지금껏 읽었던 수 만권의 이론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와서 훗날 다산이 더욱 학문에 정진토록 하는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한다. 다산이 백련사와 인연을 맺게 된 연유는 당시 백련사에 주석하던 혜장선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다산이 유배된 초당에서 백련사로 혜장선사를 찾은 것은 1805년 4월이었는데, 그로부터 6년간 쌓은 교분은 다산이 지루한 유배 생활에서 또 다른 활력소가 되었다.

다산은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총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조선조 오백 년을 통틀어 가장 개혁적인 군주라고 평가받는 정조대왕의 뜻에 따라,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는 거중기를 발명하여 큰 공을 세웠고, 나라를 다스리는 관제 토지제도와 세금 제도 등을 밝히는 경세유표,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 제도를 바로 세우는 흠흠신서, 목민의 기준을 세운 목민심서 등은 오늘까지도 읽히고 있는 서책들이다. 인간의 역사는 때로는 아이러니할 때가 있다. 인류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어떤 경우이건 뼈를 깎는 노력과 피를 말리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가 없듯이 다산 역시 그러하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다산에게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이처럼 방대한 저술이 가능했을까? 중원 (中原)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 (史記)를 저술한 사마천에게 궁형이라는 형벌이 없었더라도 그 위대한 저술이 가능했을까 싶은 게 또 다른 관점이다. 다산이 이처럼 방대한 서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을 통하여 유 (儒)와 불 (佛)을 넘나드는 혜장스님과의 깊은 교제가 큰 힘이 되었음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백련사는 다산이라는 조선 시대 거유 (巨儒)로 말미암아 유명해졌고 혜정선사는 다산이라는 걸출한 대학자가 있어 꽃다운 이름을 길이 알렸다. 그 가운데 놓인 백련사 동백나무 숲은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진 바 있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 사진 설명

백련사 대광보전: 조선조 명필 이광사의 필적.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가면서 이광사가 쓴 대광보전 현판을 보고 천하의 졸필이라 욕하며 불쏘시개나 하라고 했다. 귀양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백련사에 다시 들린 추사가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창고에 버려진 이광사의 현판을 다시 달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칡넝쿨로 다리를 만든 유성룡

시인 · 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선조 때의 명신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판서와 도체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그는 일본군에 맞서 전쟁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이어 영의정이 되어 왕의 피난길에 따라갔다가 평양에서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그 뒤 유성룡은 평안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선조 26년(1593년) 1월 조명 연합군으로 일본군과 싸워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때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양성을 빼앗긴 것에 놀라 서울을 지키는 일에 온힘을 쏟았다. 각지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서울로 모여 들었는데 모두 5만 명이나 되었다.

유성룡은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서울을 탈환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평양성을 탈환한 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그 기세를 몰아 파주로 진군했다. 그리고 벽제에서 일본군과 맞붙었는데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그 뒤로 겁을 집어먹은 이여송은 도무지 군사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유성룡은 이여송을 재촉했다.

"어서 진군합시다. 서울에 일본군이 총집결한다는데, 일본군을 몰아내고 서울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만, 임진강 얼음이 막 풀려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군사들을 건너게 할 다리나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여송은 임진강 핑계를 대며 명나라 군대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안 되겠다. 명나라 군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유성룡은 임진강을 건널 방법을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적교를 만들자! 적교로 임진강을 건너는 거야.'

적교란 양쪽 언덕에 쇠사슬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를 말한다.

'쇠사슬 대신 칡넝쿨을 써서 다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유성룡은 금교역에 도착하여 명나라 대군에 음식 대접을 하러 온 황해도 고을 수령들 중에 우봉현령 이희원을 불러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고을 백성 수백 명을 동원하여 칡넝쿨을 잔뜩 준비해 임진강 상류로 오너라."

다음 날 아침 유성룡은 임진강가로 나갔다. 강의 얼음은 그대로 있었지만, 날이 포근하여 얼음이 푹 꺼져 있었다.

유성룡은 강가로 모여든 우봉 고을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가져온 칡넝쿨을 쌓아 놓아라. 지금부터 칡넝쿨을 꼬아 큰 동아줄을 만들어라."

우봉 고을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큰 동아줄을 만들었다. 동아줄은 강 너비를 지나갈 만큼 길었다. 모두 15다발이 만들어졌다.

유성룡은 강 양쪽 언덕에 땅을 파고 두 기둥을 세우게 했다. 그런 다음 큰 동아줄을 길게 펴서 강을 지나가게 하고 양쪽 끝을 기둥에 묶도록 했다. 하지만 강 너비가 너무 길어 동아줄은 중간이 늘어져 물에 잠겨 버렸다.

이때 유성룡은 기지를 발휘하여, 병사 천여 명에게 짧은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라 하여 막대기로 긴 동아줄을 걸쳐 세우게 했다. 그러자 임진강에는 칡넝쿨로 만든 긴 다리가 놓였다.

유성룡은 다리 위에 싸리나무·버드나무·갈대를 걸치고 흙을 덮게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다.

명나라 대군은 새로 놓인 다리를 보고 기뻐하며 말을 달려 다리 위를 지나갔다. 화포·병기를 실은 마차가 다리를 건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나중에는 무게를 못 견뎌 다리의 동아줄이 늘어져 물에 닿았다. 할 수 없이 나머지 병사들은 얕은 여울을 따라 강을 건너갔다.

유성룡이 만든 다리 덕에 임진강을 건넌 병사들은 남쪽으로 진격했고,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유성룡은 이 공로로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한편, 유성룡은 임진왜란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책이 바로 『징비록』이다. 선조 25년(1592년)부터 선조 31년(1598년)까지 7년간의 기록으로, 임진왜란의 원인·실상·전쟁 이후의 상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임진왜란 때 유성룡은 영의정 겸 4도 도체찰사로서 군사를 총지휘했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를 거쳐 임금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그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징비록』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 유성룡은 관청의 다양한 공문서를 미리 베껴 놓았다고 한다. 그 자료집이 바로 보물 제160호 『군문등록』인데, 이러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진왜란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경상도 안동의 하회마을 옥연정사 원락제에 머물며 『징비록』을 집필했다.

『징비록』은 인조 11년(1633년) 그의 아들 유진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유진이 유성룡의 문집인 『서애집』을 펴내면서 그 안에 실렸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였던 그의 외손자 조수익이 인조 25년(1647년) 16권으로 된 『징비록』을 간행했다.

이 책은 숙종 21년(1695년) 일본 교토 야마토야에서 간행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조선 통신사들을 통해 알려지자,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적을 정탐한 것을 적에게 고한 것'이라 하여 『징비록』의 일본 수출을 금했다.

『징비록』이란 책 이름은 『시경』에 '지난 일을 경계해 뒷날의 환난을 대비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1-2권이 「징비록」, 3-5권이 「근포집」, 6-14권이 「진사록」, 15-16권이 「군문등록」·「난후잡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의 원인·실상·전쟁 이후의 상황 등 임진왜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 임진왜란의 중요한 사료와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저자 자신의 필사 원본인 『초본 징비록』은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노거수 산책(3)

의령 신포리 느티나무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세상에 이런 나무가 또 있을까? 이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742-12번지 느티나무는 500년을 훌쩍 넘은 수령에 키 24m, 가슴높이 둘레 8.3m, 가지 펼침 폭은 무려 42m나 된다. 1982년 의령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하늘의 뭉게구름이 들판에서 쉬고 있는 모습 같다. 특히 가지를 하늘로 높게 뻗는 일반적인 노거수의 수형과 달리, 거대한 줄기를 아예 땅에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어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주 독특한 수형을 보여준다.

농사일이 삶의 전부였던 시절에 들판 한가운데 낮고 둥근 기단을 조성해서 그 중심에 느티나무를 심었다. 아무런 간섭 없이 홀로 바람길에 서 있다 보니, 넓게 또 낮게 자랐고, 오래된 큰 나무를 신성시한 옛 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줄기가 땅에 닿았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마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지가 높게 형성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수형의 노거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국내 보호수 1만 4천여그루 중 절반이 느티나무이다. 큰 그늘을 만들어주며 오래 사는 장수목이다. 신포리 느티나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진귀한 수형은 물론, 마을의 안산(案山) 역할을 해주며 농본사회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공간구조를 띠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까지 갖추고 있다. 생활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한 농경시대 사람들의 실용과학이 놀랍다. 지금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늦어도 한참 늦은,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문화자산이다.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박 정 기

신규회원사 (2023.07-09)

지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남동부	다올조경& 분재와차	김용묵	010-9904-350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마륜길 97-12
전남동부	라움조경	김진현	010-4225-7045	전라남도 순천시 임촌동2길 25
경기	건국조경 주식회사	하회승	031-202-4690 010-3003-48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13, 2층
전북서부	찬누리원(유) 농업회사법인	유선화	010-2601-6447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백암1길 82-41
전북동부	초록농장	강반석	010-5040-0825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노산로 220
전북동부	구고농원	전원석	010-9453-5585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32-7
전북동부	열린조경	이태규	010-3949-907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작지길 47

회원사변경 (2023.07-09)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우정농원	우상철	대표자, 핸드폰변경	대표자:우정웅→우상철, 핸드폰:010-6804-6556
명보조경	강상수	주소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윙스타워 A동 603호
새고개농장	김동현	대표자, 핸드폰변경	대표:김기도→김동현, 핸드폰:010-4552-6308
수림농원	허도근	이름개명, 핸드폰변경	개명:허만근→허도근, 핸드폰:010-3551-2544
동백조경	강인수	핸드폰변경	핸드폰:010-7774-8582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 회비 납부 계좌

지회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중앙회 (*임원 회비입금처)	농협	031-01-362481	한국조경수협회
서울	우리	1006-401-561764	양경복(사)한국조경수협회 서울지회
경기	농협	302-1421-0329-11	송병수 (사)한국조경수협회 경기지회
강원	농협	351-0802-3423-13	김진걸
충북	농협	352-2078-8185-83	조경수협회 충북지부 이상국
대전·세종·충남동부	농협	352-1714-0067-63	송대영
충남서부	농협	352-1240-2624-53	안신
전북동부	농협	352-1710-6368-53	송인자 (사)한국조경수협회
전북서부	농협	351-1266-1784-43	권일병
전남동부	농협	356-1573-9347-53	송종일
광주·전남서부	산림조합	601-11-0003074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대구·경북	농협	317-0026-7142-91	한국조경수협회 대구경북지부
경남중부	농협	356-1357-3775-13	경남중부지회
경남서부	국민	580902-01-512734	이제현
울산	국민	866001-01-365763	이윤해
부산	부산	112-2157-0993-03	박미애
제주	농협	979-12-275401	김승철

• **회비납부율(8.31일 현재)** : 임원 87.6%, 일반회원 : 58.46%

2023 산림산업조사 조경재 조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소득향상 및 발전과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산림산업 조사 – 조경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조경재를 재배하는 임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조경재 생산량과 생산액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

조경재를 재배, 생산, 판매하는 임가 및 사업체
※ 조경재 : 조경수, 분재소재, 분재완재, 야생화, 자생란,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조사기간

2023년 **6월** ~ **9월**

조사방법

조사원 현장방문조사

조사내용

- ▶ **2023년 조경재 생산량 및 생산액**
- ▶ **전년 대비 생산량의 변화**

문의사항

리서치림 조사부 윤효정 부장 02-6265-4294 / yhj@relim.co.kr

주최 : 산림청 주관 : Kofpi 한국임업진흥원 조사수행 : RESEARCH Hankook Research

창조적 친환경 조성, 한국조경수협회 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경영을 현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임업정책자금(조경수생산자금)을 해당 산림조합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2. 조경수생산 및 녹화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3. 산림소득사업공모(조경수컨테이너 재배)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행 작성해 드립니다.
4. 한해 대비 조경수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정시설사업 국고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조경수 최신 생산기술과 관리에 대한 최신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조경수 가격, 공사품셈, 회원명단이 게재된 조경수목정보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조경수 매물정보」코너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등)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최신 조경수 생산기술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시찰, 기술세미나 등 협회주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조경수를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문 의 처 :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조경수 직거래 안내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에서는 조경수 매물, 매입의 직거래를 할수있습니다.
- 이용료 납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시간에 구애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어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분은 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추천매물 농장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묘목매물	조경수 매입
이용료 연 30만원 (홈페이지제작시 별도비용발생)	연 7만원 6개월 5만원	무료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봉명동 447-6) 레자미(Ⅲ) 오피스텔 203호
TEL : 042-822-5793~4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http://www.klta.or.kr